

5) 유지식품 및 특용작물

산야가 많은 순천 인근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유지식품은 참깨와 들깨이다. 그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늘고 있고, 독특한 향미로 현대인들의 밥맛을 돋우고 건강을 지키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참깨의 재배는 이상기온과 이어짓기의 피해로 인하여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급격히 떨어진 해도 있었으나 해마다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참기름 등의 식물성 유지 속에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 성분인 필수지방산과 비타민E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그 수요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식물성 유지의 성분인 리놀산(linoleic acid)과 리놀레산(linolenic acid)은 고혈압·간경화 등의 원인이 되는 콜레스테롤(cholesterol)의 수치를 낮춰주는 작용을 하고 해독제나 완화제 등의 약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참깨 등의 유지식품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1979년도 국내 자급률 73.8%)하여 정부에서 참깨 재배를 계속 권장하고 있으나, 수익이 채소류보다 불리하며 교통이 불편하고 척박한 땅에서 많이 재배되어 수입물량으로 보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용작물 중 기호식품으로 손꼽히는 녹차의 재배는 연평균 기온이 14~20℃, 강우량이 1400mm가 되는 지역에서 적절하다. 조계산 일대가 재배 적지로서 17세기 초 선암사 주변에 100주 가량의 차나무를 이식·재배한 것을 시작으로 이 지역의 차나무 재배가 시작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동안 관리를 소홀히 해오다가 1982년 이후부터 행정적인 지원을 받아 녹차 제조공장을 설치·가동하여 전국 각지로 출하함으로써 맛과 향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멀리 일본에까지도 그 명성이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자생 차종인 선암사지역의 녹차는 시비관리(施肥管理)와 기계를 이용한 양적 증산에만 치중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녹차와는 질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특용작물 중 약용식품으로 유명한 인삼은 한국과 중국이 원산지이며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천연적으로 분포한다. 북위 36~38°에 토양과 입지조건이 좋으면 어디서나 재배가 가능하다. 순천지역에서는 1972년에 황전면 황학리에서 처음으로 인삼을 시험 재배했었고, 1980년에는 행정지원하에 주암면 행정리에 인삼 시범포가 설치되어 해마다 확대 재배된다. 예로부터 만병통치의 생약으로 알려진 인삼이 많이 생산되는 요즈음은 약용 이외에도 인삼정과 등의 건강음식으로 활용되고 있다.